

2008. 12. 1 제204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12. 1 제204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오사카를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오사카 주유패스'

### 문화·디자인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영화산업 진흥 계획 (런던)
2. 젊은이 대상 음악교육 강화하는 '문화 전략' (런던)
3. 아이들이 즐기는 박물관 (뉴욕)

### 산업·경제

4. '경제회복계획' 발표해 경제 불황에 적극 대처 (런던)
5. 돈? 카드? 이제는 지문인식으로 결제 (상하이)
6. 세계적인 경영인에게 자문하라 (상하이)

### 건강·복지

7. 자급자족하는 세계도시를 위한 도시 쌈지농장 (런던)
8. 정보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 (독일)
9. 야채와 과일 먹는 습관은 학교에서부터 (캘리포니아주)
10. 헌혈은 이웃에게 주는 생명의 선물 (뉴욕)

## 목 차

11. 어린이를 위한 ‘역할극 놀이체험관’ 개장 (상하이)
12. 문제지역 학교에 졸업생을 특별교사로 초빙 (베를린)
13.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재택 의료 네트워크 사업’ (도쿄)

### 행정·재정

14. 지방정부 공무원 구인정보 사이트 통합 운영 (영국)

### 방재·안전

15. 폭탄에도 끄떡없는 ‘슈퍼 쓰레기통’ 설치 (런던)
16. 방사능 폭탄 테러에 대비한 재해 대처 훈련 (도쿄)

### 도시환경

17. 경사면 녹지 개발로 경관 조성 (요코하마)
18. 심층수를 이용한 천연 에어컨 시스템 (호놀룰루)

### 도시교통

19. 집 근처 주차장에서 언제든지 자동차를 빌리세요 (파리)
20. 대학에 차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 줍니다 (미국)
21. 대중교통이 가야할 길, ‘Way to go’ 교통정책 제안서 (런던)
22. 이동이 많은 직업인에게 무료 주차 혜택 (파리)

### 도시계획·주택

23.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을 자치구별 할당으로 변경 (런던)
24. 자가용 없는 주거단지 건설 (독일 함부르크市)

## [벤치마킹 사례]

오사카를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오사카 주유패스’

### <주요 내용>

#### ○ 오사카 지역의 관광정책

- 오사카 지역은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으로, 외국인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자주 찾는 곳이며,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음.
- 오사카 지역은 주변 관광지인 교토, 고베, 나라 등으로 연결되는 기점으로,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관광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 간사이 지역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간사이 스루패스’와 ‘오사카 주유패스’ 등 관광객을 위한 관광·교통카드가 있음.

#### ○ 오사카 주유패스의 특징

- 오사카 주유패스는 오사카 시내의 관광지를 1~2일 동안 빠르고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음.
  - 관광객의 일정에 맞추어 1일이나 2일권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1일권이 2000엔(약 3만 2000원), 2일권이 2700엔(약 4만 3000원)임.
  - 주유패스를 이용하면, 지하철·버스 무료 탑승, 27개 관광지 무료 입장, 13개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50여 곳 식당 및 쇼핑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해설 및 평가>

### ○ 오사카 주유패스의 용이한 접근성과 다양한 혜택

- 주유패스에 대한 안내문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일본어를 하지 못해도 자세한 정보를 얻기 쉬움.
- 관광안내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주유패스를 구매할 수 있음.
- 27개 관광지에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13곳은 이용료가 할인됨.
- 무료 입장 관광지는 대부분 오사카 관광의 필수 코스임. 관광객이 관심있을 만한 곳을 선정해 무료입장 혜택과 할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많은 관광객이 주유패스를 적극 활용함.



한국에서 판매하는 오사카 주유패스 및 관광안내 자료



오사카 주유패스로 무료입장이 가능한 오사카성(왼쪽)과 오사카 국립박물관(오른쪽)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 서울시티패스(Seoul City Pass)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로서의 기능을 하는 '서울시티패스'(Seoul City Pass)를 개발함.
- 시티투어 버스를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고 서울시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의 주요 인기 관광명소를 쉽게 방문할 수 있음.

### ○ 서울시티패스의 문제점

- 주요 문화관광 시설 입장료 할인이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 관광객이 선호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구성돼 있어, 관광객의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임.
- 패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인터넷 검색 시 할인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이나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움.
-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T-money 회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외국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매우 제한적임.
- 서울시티패스는 서울시 소속 관광안내센터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에서는 판매되지 않음.
- 제도상으로는 편의점 등 120여 개의 가맹점에서 판매해야 하나, 판매의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업주 편의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음.

##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티패스는 관광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망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짐. 활용도 증진을 위해 판매망 확대가 필요함.

- 서울시 산하 관광안내센터에서만 판매되는 것을 확대해 다른 소속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센터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건상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판매가 가능한 곳을 재선정해 관광객에게 판매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서울시티패스에서 추천하는 관광지를 서울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구성해 무료입장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광객 선호 지역이나 서울시가 관광 전략상 알리고자 하는 곳으로 선정해 무료입장이나 할인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야 함.
  - 식당 이용이나 쇼핑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거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해야 함.

####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티패스를 이용해 관광객은 편리하고 빠르게 서울시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오사카와 같이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패스 개선은, 관광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관광객이 한눈에 서울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
- 서울의 주요 관광지나 즐길 만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구성된 서울시티패스를 이용하면 관광객의 서울에 대한 이미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나아가 서울시의 글로벌 관광전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반정화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jhpan@sdi.re.kr)

###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영화산업 진흥 계획 (런던)

- 런던시는 세계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산업을 진흥하는 계획을 발표함.
  - 최근 영화, 텔레비전 등 영상산업의 주요 관계자들과 자리를 마련해 영화와 미디어 산업을 위한 새로운 법률 입안과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함.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런던 영화의 날’(London Film Day)도 제정함.
  - 2004년 ‘런던영화제’(Film London) 개최 이후 영화산업이 40% 성장했으며, 영화산업은 현재 10만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375](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375))

### 2. 젊은이 대상 음악교육 강화하는 ‘문화 전략’ (런던)

- 런던시는 많은 젊은이가 음악활동에 참여하고 음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첼로연주자를 초청해 음악교육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 많은 음악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젊은이의 음악적 관심과 재능, 작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내용을 런던시의 ‘문화 전략’(Cultural Strategy)에 반영함.
  - 음악교육에 필수적인 악기를 손쉽게 구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한 잡지사와 연계해 중고 악기를 기부받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43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437))



### 3. 아이들이 즐기는 박물관 (뉴욕)

- 뉴욕市는 극장, 동물원, 공원, 체육시설 등 여러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와 체험학습의 기회로 제공함.
  - 특히 ‘브룩클린 어린이 박물관’(Brooklyn Children’s Museum)은 새로 개장한 약 560㎡의 실내공간과 노란색의 외벽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음.
    - 2008년 가을에는 인도, 서부 아프리카, 이탈리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
    -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 외에 음악 및 미술교실 등 상시 프로그램도 기획해, 많은 어린이가 방과 후 참여할 수 있는 근린 교육시설로서도 역할함.
  -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은 최근 리모델링 이후 더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 단순히 눈으로 관람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만드는 박물관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함.

(www.nydailynews.com/ny\_local/2008/09/28/2008-09-28\_best\_fall\_activities\_for\_kids\_in\_nyc.html)

(www.brooklynkids.org)

## 산업 · 경제

### 4. ‘경제회복계획’ 발표해 경제 불황에 적극 대처 (런던)

- 런던市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대응책을 담은 ‘경제회복계획’(Economic Recovery Plan)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조치임.

- 런던시장은 기업 대표, 관련 단체, 금융 조직,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등과 만나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함.
- ‘경제회복계획’의 주요 내용은 런던개발청의 4억 파운드(약 8062억 원)를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투입하고, 6억 파운드(약 1조 2000억 원)를 직업기술 훈련과 재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것임.
  - 현재 진행 중인 50개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노후화된 지하철 개선사업, 도심전철 개선 및 지하철과의 연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함.
  -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공사업 공개입찰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함.
  -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직자의 구직활동도 지원할 계획임.
  - 경기 불황으로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는 금융업 외에도 언론·미디어, 패션, 첨단 기술 등을 중점 육성할 방안임.

([www.localgov.co.uk/index.cfm?method=news.detail&id=72535](http://www.localgov.co.uk/index.cfm?method=news.detail&id=72535))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45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457))

## 5. 돈? 카드? 이제는 지문인식으로 결제 (상하이)

- 상하이시는 2008년 10월 8일부터 지문인식 방식으로 상점에서 지불하는 서비스를 실시함.
  -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 건설은행 상하이 지점의 기존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지문인식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서명하면 됨.
  - 신규 가입자도 간단한 지문인식 서비스 신청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음.
  - 지문인식 지불방식을 이용하면 카드와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문 하나로 결제할 수 있으며, 지갑 분실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 지문인식 지불방식은 현재 서비스 업무가 고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지문식별과 지불방식이 결합해 탄생함. 은행 지불업무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news.qq.com/a/20081008/000495.htm)

## 6. 세계적인 경영인에게 자문하라 (상하이)

○ ‘세계화 속의 상하이 회고 및 전망’을 주제로 제20차 상하이 시장 국제기업가 자문회의가 2008년 11월 2일 개최됨.

- 상하이市の 경제활동 수준을 높이고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 당시 주룽지 상하이 시장의 제안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나 전문경영인이 모여 세계 경영자문그룹을 결성함.
  - 당초 7개국 12명이었으나, 현재는 14개국 39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세계화 속에서 상하이市가 직면하고 있는 발전 환경과 상하이市の 능력이었음.
  - 상하이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으나, 경제발전과 도시건설, 투자환경 개선, 생태환경 정화 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5827/userobject21ai304669.html)

### 한 줄 뉴스

#### ● 브라질

- 정신질환제나 수면제 등 ‘통제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안 추진
- 포르토알레그리市, 장난감 기부하면 시티투어 버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장난감은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하는 ‘크리스마스 관광 캠페인’ 벌여

## 건강 · 복지

### 7. 자급자족하는 세계도시를 위한 도시 쌈지농장 (런던)

○ 런던市는 런던 식품위원회(London Food)의 중점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접 길러 먹고 먹을 수 있는 도심 쌈지농장 2012개소를 2012년까지 설치하기로 함.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좀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런던 시장의 의욕적인 사업임.

- 경작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면, 농장 운영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와 개인에게 맡기고, 市는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함.
  - 자치구청, 학교, 병원, 주택 조합, 전기·수도·가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봄.
  - 이미 지역사회 단체나 환경 단체, 학교 등은 도시 농장을 운영해 농작물을 생산한 경험이 있어 사업 시행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직접 재배하거나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작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일부 도심 자치구가 대여하는 농장 경지 신청은 인기가 높아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임.
- 런던市는 도시 쌈지농장이 늘어나면 시민 건강뿐 아니라 도시 녹지가 늘어나 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53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538))

([www.capitalgrowth.org](http://www.capitalgrowth.org))

#### >>> 전문가 검토의견

- 이제까지 도시는 농산촌의 생산물을 소비만 하는 곳이었으나, 도시 내 농작물 공간을 확보해 도시민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으로 보임.

- 기존에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경작지를 건폐지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속가능한 토지로 이용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
  - 쉬고 보고 즐기기 위한 녹지공간 일부에 생산물을 재배함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있는 농장으로 활용하고, 여러 단체의 생산 경험을 이용해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민 참여를 북돋는 좋은 사례임.
-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소규모 경작 공간을 찾아 도시민이 직접 생산할 필요성이 생김.
-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개발로 인해 생산녹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나마 일부 도시 자연공원 경계에서 일부 밭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원이 없음.
  - 행정 측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적·행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활성화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8. 정보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 (독일)

- 독일 연방 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독일 도서관 주간’이 2008년 10월 24~31일까지 ‘독일은 독서한다. 만남의 장소 도서관에서’라는 모토로 독일 전역에서 개최됨.
- 정보화 시대에서 아무리 전자정보가 우위를 점한다고 해도 도서관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책과 독서는 학문과 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초임.
- 2000여 개의 국립·시립 공공도서관과 전문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함.
- 토이슈니츠市 도서관의 ‘추리소설의 밤’, 오스나부르크市 도서관의 ‘유럽의 고대 서사시 재발견’, 킬市의 ‘18세기 자연 연구’, 할레市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토론’, 함부르크市の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등의 행사가 열림.

- 베를린 교육청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독서 장려를 위해 유치원, 학교, 도서관 사이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맺음.
- 독일 연방 도서관협회는 앞으로도 도서관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창의적인 문화행사 제공을 시민에게 확대 제공하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구속력 있는 문화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을 포괄하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속력 있는 도서관법을 제정할 예정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0/24/112427/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0/24/112427/index.html))

([www.treffpunkt-bibliothek.de](http://www.treffpunkt-bibliothek.de))

### >>> 전문가 검토의견

- 정보화 시대에 있어 도서관은 정보, 지식, 도서관 공간, 여러 프로그램 연계가 중요한 정책 방향의 하나로 부각됨.
-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서관법에 의해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에 도서관과 정보정책을 연계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음.
- 서울시는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자치구 관할, 교육청 소속, 도서관 시민운동 등 여러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서비스를 하고 있음.  
·앞으로 시민이 도서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서울시의 조정과 체계화가 중요함.

/조권중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jchoh@sdi.re.kr)

## 9. 야채와 과일 먹는 습관은 학교에서부터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州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간식으로’(FFVP: The Fresh Fruit and Vegetable Snack Program)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25개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8년 말까지는 캘리포니아州 180개의 초등학교에 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 학생들은 농산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사탕이나 과자 대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간식으로 먹게 됨.
  - 2008년 연방 농업법은 이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008년 4900만 달러(약 628억 원)였던 예산을 2011년과 2012년에는 1억 5000만 달러(약 1900억 원)로 증액하기로 함.
    - 캘리포니아州도 2008년에는 270만 달러(약 34억 원)를 지원받았지만 2011~2012년에는 830만 달러(약 106억 원)를 지원받을 예정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fruit31-2008oct31,0,3828582.story](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fruit31-2008oct31,0,3828582.story))

## 10. 헌혈은 이웃에게 주는 생명의 선물 (뉴욕)

- 뉴욕市 보건국과 혈액은행(New York Blood Bank)이 ‘헌혈은 삶에 대한 선물을 주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를 진행함.
  - 뉴욕市에서만 매일 2000명 정도의 헌혈이 필요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호응과 나눔이 절실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대규모 홍보가 진행 중임.
    - 버스, 정류장, 관보, 방송,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각 학교,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해 헌혈 관련 나눔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 결과 매년 혈액 기증자와 양이 증가하는 추세임.

- 뉴욕 혈액은행은 헌혈자를 대상으로 혈액센터에 정식 등록하도록 독려함.
    -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향후 혈액 수요 예측과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임.
    - 헌혈 72시간 전에 헌혈센터에 미리 등록하고,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복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함.
  
  - 헌혈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등록된 기증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 중임.
    - 기증자 카드를 발급해, 누적 헌혈양에 따라 Red(1갤런 이하), White(1~4갤런), Gold(5~9갤런), Black(9갤런 이상) 카드로 나눠 많은 혜택을 줌.
- (www.nybloodcenter.org/index.jsp?sid0=2)

## 11. 어린이를 위한 ‘역할극 놀이체험관’ 개장 (상하이)

- 상하이시는 2008년 10월 31일 ‘어린이 과학 탐험관’ 행사를 개최해 어린이를 위한 역할극 놀이체험관을 처음 선보임.
    - 50여 개의 체험관에 각 주제별 체험코너를 설치하고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진행함. 어린이는 총 70여 종의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고 다양한 상점에서 소비하는 등 직접 경제활동을 체험함.
      - 이러한 역할극은 어린이에게 경제의식을 심어 주고 자립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부모와 아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음.
-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5827/userobject21ai304537.html)



## 12. 문제지역 학교에 졸업생을 특별교사로 초빙 (베를린)

○ 베를린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구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Teach First Deutschland'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

- 성적과 인성, 재능이 뛰어난 졸업생을 사회적 문제지역의 학교에 2년간 특별교사로 임용해 강의와 학생 보충지도를 하게 함.

·선발된 특별교사는 수업시간에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보충지도 시간을 통해 과제를 지도함. 직업훈련소와 협력해 학생들이 좀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교육받게 도와줌.

·이들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모델로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교사는 고교 성적만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과 인성을 갖춘 졸업생 중에서 선발함.

·문제가 있는 학교가 주로 이민자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민자 출신의 졸업생을 다수 선발할 예정임.

·선발된 졸업생은 특별교사 활동 시작 전과 활동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35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유사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Teach For America'와 영국의 'Teach First'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성공적으로 평가받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0/22/11223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0/22/112234/index.html))

([www.vodafone-stiftung.de](http://www.vodafone-stiftung.de))

### 한 줄 뉴스

#### ● 파리

- 지방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박사업을 장려하고 민박 가이드를 발간

#### ● 런던

-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Westfield Shopping Center'를 도심에 세우면서, 교통시설에 크게 투자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접근하기 쉽게 건설

### 13.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재택 의료 네트워크 사업’ (도쿄)

- 도쿄都是 도민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 방문 간호사, 돌봄 도우미 등 재택 의료 서비스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3개 지역에서 ‘재택 의료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2006년 2월에 실시한 보건 의료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50%가 재택 요양을 원함.
    - 하지만 응답자의 80%가 가족 부담과 응급 시 불안 문제로 재택 요양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답함.
  - 재택 의료 네트워크 사업은 도민의 요구와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 365일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3개 지역에서는 각각 다른 모델 사업을 실시해 향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도내 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델 사업의 종류는 재택 호스피스 완화 관리 네트워크 구축, 관련 진료과와 제휴한 재택의료 지원체제 구축, 재택의료 조정시스템 구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0/20iav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0/20iav300.htm))

## 행정 · 재정

### 14. 지방정부 공무원 구인정보 사이트 통합 운영 (영국)

-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지방공무원 구인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무료 구인 정보 사이트([www.lgjobs.com](http://www.lgjobs.com)) 운영을 시작함. 지방정부협의회의 집행기관인 지방정부개선개발국(IDEA: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gency for Local Government)이 운영함.

- 신문과 같은 지면 구인 광고료로 연간 6억 파운드(약 1조 3500억 원) 이상 지출되는 지방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 구인 사이트 구축에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방공무원 시험 온라인 응시와 구인·구직 정보 검색에 대해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함.
- 자치구가 이 사이트에 직접 무료로 구인 정보를 올리면, 응시자 통계정보 열람이나 등록된 구직자 대상 구인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www.idea.gov.uk/idk/core/page.do?pageId=8913081](http://www.idea.gov.uk/idk/core/page.do?pageId=8913081))

([www.lgjobs.com/pages/show/Free%20job%20listings](http://www.lgjobs.com/pages/show/Free%20job%20listings))

## 방재 · 안전

### 15. 폭탄에도 끄떡없는 ‘슈퍼 쓰레기통’ 설치 (런던)

- 런던시는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이른바 ‘슈퍼 쓰레기통’을 도심부에 설치할 계획임.

- 1980년대 아일랜드계 무장 테러집단이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을 이용한 폭탄 테러를 일으키자 도심 쓰레기통이 테러의 상징인 위험물로 취급받게 됨. 이를 계기로 지하철역과 기차역 등의 공공 쓰레기통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음.

- 안전 위협 때문에 공공 쓰레기통 수를 줄이자 공공시설 내 쓰레기가 누적돼 비위생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그동안 지하철역 내에서 사용한 투명한 비닐 쓰레기통은 미관상 부정적인 지적을 받아왔음.



- 슈퍼 쓰레기통은 폭발지능 기술을 활용해 폭발물의 열기를 흡수하고 파편이 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안됨.
- 쓰레기통에 LCD 스크린을 설치해 주요 뉴스와 교통상황 등 정보 게시 기능도 함께 제공함.

(www.timesonline.co.uk/tol/news/uk/article5051419.ece)

### >>> 전문가 검토의견

- 슈퍼 쓰레기통 설치는, 폭발물 테러 방지의 효과가 일부에 그치고 고가라는 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슈퍼 쓰레기통을 설치하더라도 폭발물 테러를 전반적으로 막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은 슈퍼 쓰레기통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자살 테러, 분실물 가장 테러 등 다른 방식으로 폭탄 테러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임.
- 슈퍼 쓰레기통은 한 개당 5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임.
- 비용부담으로 런던市에서도 상업 중심지에 수백 개 정도만을 설치할 예정임. 참고로 서울시의 가로 쓰레기통 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3700여 개임.
- 슈퍼 쓰레기통 설치에 관한 타임즈 보도에 대해 독자들은 회의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음.
- 슈퍼 쓰레기통의 높은 가격에 대한 비판과 폭발 테러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는 글들이 주류임.

/원종석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jswon@sdi.re.kr)

## 16. 방사능 폭탄 테러에 대비한 재해 대처 훈련 (도쿄)

- 도쿄都는 방사능 폭탄 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대응력 향상 및 체휴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1월 7일 '대규모 테러 재해 대처 훈련'을 실시함.
- 도쿄都는 2003년부터 매년 대규모 테러 재해 대처 훈련을 실시해 왔음.

·2003년에는 천연두를 이용한 생물 테러, 2004년에는 화학 테러, 2005년 방사능 폭탄 테러, 2006년 동시 다발 폭탄 테러 및 화학 테러, 2007년 화학 테러 대처 훈련을 실시했음.

- 이번 훈련의 특징은 방사능 폭탄에 대응한 실제 훈련으로, 해외에서 방사성 물질이 불법으로 반입됐다는 정보를 조사기관에서 입수해 도쿄都 인근에서 연쇄 폭파 테러가 발생했다고 가정함.

·방사능 전문가의 지도 아래 각 기관이 연계해 방사능 오염 상황에 따른 구출 및 구조, 피난을 실시함.

·테러 재해 훈련 현장에는 전문 부대가 최신 기자재 및 특수 차량을 이용해 대처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0/20iat9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0/20iat900.htm))

## 도 시 환 경

### 17. 경사면 녹지 개발로 경관 조성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경사면의 녹지 경관을 살리기 위해 ‘경사면 녹지 개발 경관계획’을 수립해 진행해 왔음.

- 경사면 지형과 녹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한 3가지 방향은 옹벽에 의한 압박감 경감, 도로변 옹벽에 녹지 조성,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 기준의 경관계획 구성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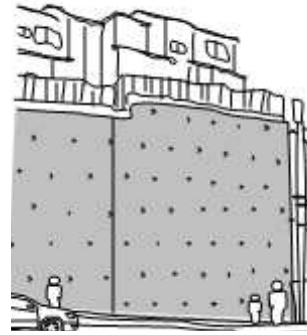
- 이번 ‘경사면 녹지개발 경관계획’의 변경 대상은 500㎡ 이상 규모의 산림 토지개발임. 새로 변경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옹벽의 높이는 도로변의 경우에는 3m 이하(단 폭 0.5m의 녹화 공간을 마련할 경우 5m까지 허용), 도로변 외에는 5m 이하임.

·녹화 기준은 개발구역 면적의 15% 이상임. 도로가 옹벽 하부에 마련한 녹화 공간에 대해서는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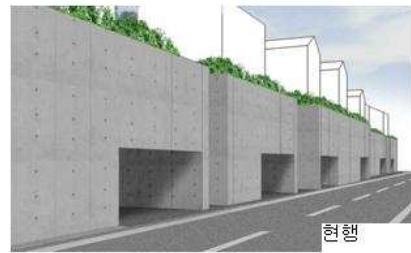
옹벽하부에 중목을 식재할 경우 녹화율을 5배로 환산



주변 환경에 압박감을 주고 분쟁을 일으켰던, 높이 10m가 넘는 옹벽



현행 (높이 9m의 데)



현행



변경 (높이 5m)



변경된 기준 (옹벽 하부에 중목 식재)

변경된 기준에 따른 옹벽의 압박감 감소

옹벽 하부의 식재로 양호한 경관 형성

([www.city.yokohama.jp/me/machi/kikaku/plan/syamenti/#yotei](http://www.city.yokohama.jp/me/machi/kikaku/plan/syamenti/#yotei))

### >>> 전문가 검토의견

-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변 환경에 위압감을 주는 옹벽은 도시경관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음. 요코하마市の '경사면 녹지개발 경관계획'에서 경사지형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성 제시는 도시경관 관리의 좋은 사례임.
- 서울시는 2008년 5월 경관조례를 제정해 경관계획 및 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옹벽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해 서울시에 적절한 기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요코하마市の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토지 개발을 대상으로 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서울시는 지형상 도심에서도 옹벽발생 사례가 많으므로 모든 도시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 18. 심층수를 이용한 천연 에어컨 시스템 (호놀룰루)

○ 하와이 천연 에너지 연구소(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는 차가운 심층수를 이용해 건물 내 냉방을 하는 천연 에어컨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음.

- 호놀룰루市는 약 1억 5200만 달러(약 1930억 원)의 예산을 천연 에어컨 시스템의 대대적인 확충에 쓸 것이라고 발표함.

- 천연 에어컨 시스템은, 근처 카카오 해안에서 약 6.4km 떨어져 있는 해저 근처의 수심 약 487m에 있는 심층수를 약 2300m<sup>2</sup>면적의 펌프장으로 끌어올려, 섬 내의 공공기관 건물을 포함한 다른 건물의 에어컨 시스템으로 보냄.

([www.planetizen.com/node/35628](http://www.planetizen.com/node/35628))

### 한 줄 뉴스

#### ● 베를린

-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박람회인 'Moderner Staat' 2008년 11월 4~5일 개최

#### ● 요코하마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 실천지침 아이디어 모집

#### ● 상하이

- 영국 리버풀市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세계박람회에 리버풀관을 세우는 계획 등 교류·협력 강화 도모

### 19. 집 근처 주차장에서 언제든지 자동차를 빌리세요 (파리)

- 파리는 일 드 프랑스 수도권지역 교통정책의 하나로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자동차 함께 쓰기’(Autopartage)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동차는 없지만 가끔씩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자동차 대여 제도임.
  - 기존의 상업적인 자동차 렌트 서비스와는 달리 집 근처 공용 주차장에 마련된 자동차를 셀프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임.
  - 파리의 벨리브 자전거의 자동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파리는 3개의 회사를 선정해 18개월 동안 파리시 인증을 주고, 이들은 2007년에는 1km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40g, 2010년에는 120g의 환경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모집함.
  - 파리시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공공 주차장에서 약 30% 할인, 도로 주차장에서 전용주차장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8158](http://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8158))

#### >>> 전문가 검토의견

- 파리가 추진하는 ‘자동차 함께 쓰기’ 정책은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고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 셰어링(Car Sharing) 정책임. 이는 유럽에서 도입해 현재 미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나 국내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고 있음.
- 논란의 핵심은 민간이 운영하는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의 차별성과 수익성이 불분명한 것임.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민간 스스로 렌터카 서비스를 확대시행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함.



- 서울시는 승용차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재 논란의 핵심인 수익성과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김순관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sdigwan@sdi.re.kr)

## 20. 대학에 차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 줍니다 (미국)

- 미국 메인州的 뉴잉글랜드 대학교와 위스콘신州的 리펀 대학교는 차를 집에 두고 다니겠다고 약속한 신입생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제공함.

- 미국의 많은 대학은 캠퍼스 내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캠퍼스를 좀더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동차로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몇몇 대학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거나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상점과 연계해 자전거 구입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함.

- 리펀 대학교의 경우 2007년 신입생 중 75%가 차를 가지고 등교했으나, 이 프로그램 시행 후 2008년 신입생 중에는 25%만이 자동차로 등교하고 있음.

([www.nytimes.com/2008/10/20/education/20bikes.html?\\_r=1&oref=slogin](http://www.nytimes.com/2008/10/20/education/20bikes.html?_r=1&oref=slogin))

## 21. 대중교통이 가야할 길, 'Way to go' 교통정책 제안서 (런던)

- 런던市는 市의 교통정책 전망을 담은 정책제안 보고서인 '앞으로의 길'(Way to go)을 발간함. 시장이 저자로 명시된 이 보고서는 전임 시장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추진된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런던시의 교통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확대 개편된 버스 수와 노선,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사용 증가, 시민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할인 교통요금 제도 등을 꼽음.
- 현안 과제로는 혼잡한 도심 열차, 도로교통 정체,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 교통안전 문제 등을 지적함.
- 향후 교통정책 방향으로 도심열차(Crossrail) 확장과 기존 교통노선과의 연계, 노후 지하철 시설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 투자를 제안함.
- 도심열차는 런던의 교통 네트워크의 기능을 10% 향상시키고, 런던 지하철의 효율성을 30%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함.
- 이밖에 철도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한 런던 도심전철 추가 확충사업(외곽 순환도로와 같은 원형 철도 노선 개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노선 확대, 교통경찰 확충 및 폐쇄회로 모니터 추가 설치 등 교통시설 치안 확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재정비와 이륜 원동기에 버스 전용차선 개방, 자전거 이용 제고를 위한 도심 자전거 대여제도 실시 및 자치구별 자전거 센터 운영, 도심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56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568))

## 22. 이동이 많은 직업인에게 무료 주차 혜택 (파리)

○ 파리는 직업상 이동이 많은 수리공(배관공, 엘리베이터 기술자, 자물쇠공 등)이나 예술품 소매상 등을 위해 ‘무료 임시 주차카드’(Carte Sésame)를 운영해 왔음. 이번에는 밤낮으로 이동이 잦은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에게도 혜택의 범위를 확대함.

- 이 주차카드로 파리 시내의 유료주차장을 1시간 15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카드는 정액제로 1년에 90유로(약 14만 4000원)이며,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음.

(A Paris, 2008년 가을호)

## 도시계획·주택

### 23.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을 자치구별 할당으로 변경 (런던)

- 런던시는, 신규 주택의 50%를 저소득층이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기존 목표가 자치구별 특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존 50% 목표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치구별 할당 비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함.
  - 향후 3년간 구매가능 주택의 총 공급량인 5만 호를 자치구청과 의논해 개별 목표 할당량을 합의해 결정함.
    - 각 구청은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가능 여부, 최근 구매 가능 주택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목표 할당량을 런던시에 제출해야 함.
  - 런던시는 자치구와 협력을 다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416](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416))

### 24. 자가용 없는 주거단지 건설 (독일 함부르크시)

- 건축공동체와 장애인 협회, 주택 조합이 참여해 추진하는 ‘자가용 없는 주거단지’ 프로젝트가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추진 중으로, 2009년 5월에 완공됨.
  - 53개의 주택과 14개의 장애인용 주택으로 구성되는 이 주거단지는, 주택 공동체 의식을 가진 조합원이 건축계획에 직접 참여해 건설됨.
  - 이곳에 입주하려면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를 포기하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함.
    - 미래의 주민은 주거공간과 더 많은 녹지, 공동 이용 공간을 몇 번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자가용 없는 동네를 함께 설계함.

([www.hamburg.de/pressearchiv-fhh/629186](http://www.hamburg.de/pressearchiv-fhh/629186))